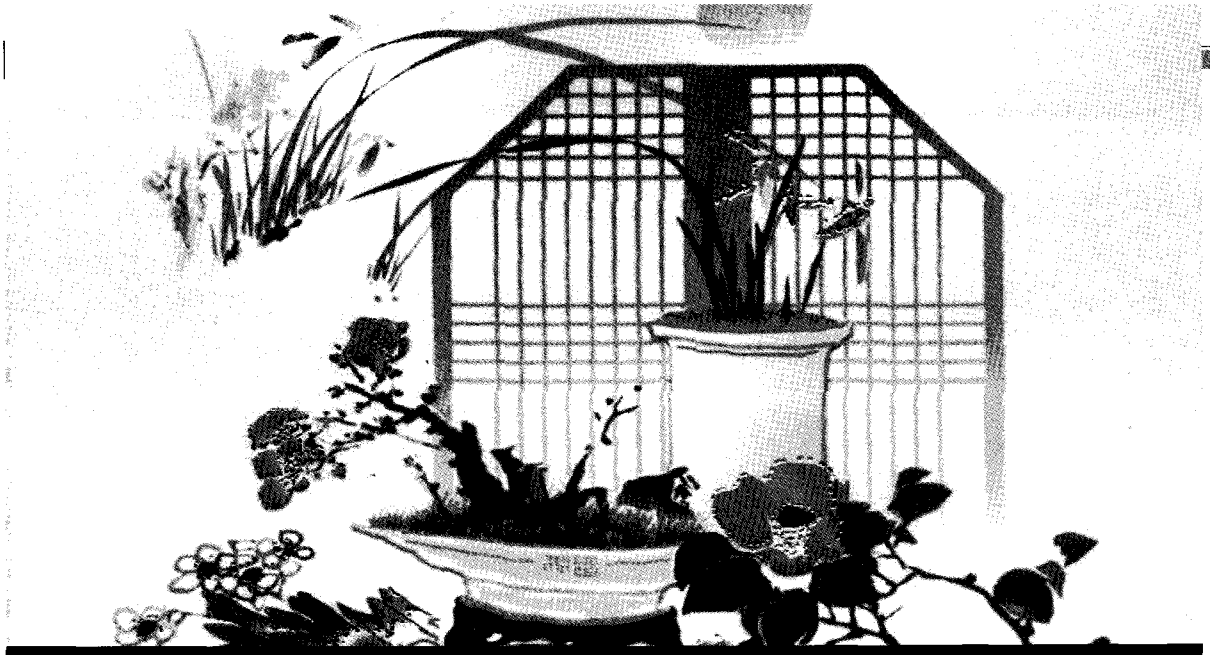


새해 중소제조업경기 올해 보다 나빠질 듯

■ 새해 중소제조업 경기는 올해 보다 부진하고 내수 · 수출, 고용, 설비투자, 기술개발투자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.
또한 내수부진과 자금조달난, 원자재수급난이 예상되며, 기업경영에 미치는 경제불안요인으로는 고유가 및 환율불안과 정치불안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.

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(회장 김용구, http://www.kfsb.or.kr)는 중소제조업 1,500개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CEO가 본『2005년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』결과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.

[조사개요]
■조사기간 : 2004. 11. 10 – 11. 22
■조사대상 : 종사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1,500개(회수 1,480개)
■조사방법 : Web-Fax 및 E-Mail 조사 병행
■조사항목 : – 2005년 중소제조업 업황, 내수 · 수출경기, 고용 · 설비투자 · 기술개발투자계획
– 2005년 경제 · 경영환경 및 중기 정책과제
– 2005년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

※ 중소기업건강도지수(SBHI) 산출방법 :
• SBHI = (크게 감소 응답빈도×0 + 다소 감소 응답빈도×50 + 불변 응답빈도×100 + 다소증가 응답빈도×150 + 크게증가 응답빈도×200) / 전체 응답빈도
• SBHI 범위 : 0 ≤ SBHI ≤ 200
• SBHI 해석 : 일반적으로 SBHI가 100 이상이면 전년보다 경기호전, 100이면 전년과 동일, 100 미만이면 전년보다 경기부진을 의미

■ 2005년 중소제조업 경기는 금년에 비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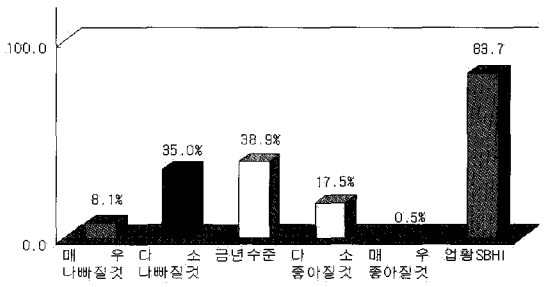
– 2005년 중소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건강도지수(SBHI)가 기준치(100.0)에 훨씬 못 미치는 83.7로 나타나 내년도 중소제조업경기는 금년의 경기부진세가 개선되지 못하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

• 이는 민간소비 위축 장기화 및 기업의 투자회복 지연으로 내수부진이 당분간 지속되고, 세계경제 성

장 둔화, 고유가 지속 및 원자재가격 상승, 환율하락, 중국의 저가 공세 등 시장환경 악화로 수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.

- 벤처제조기업 업황은 104.5로 일반제조기업(81.6)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

〈 장수중소기업의 경영활동 (8가지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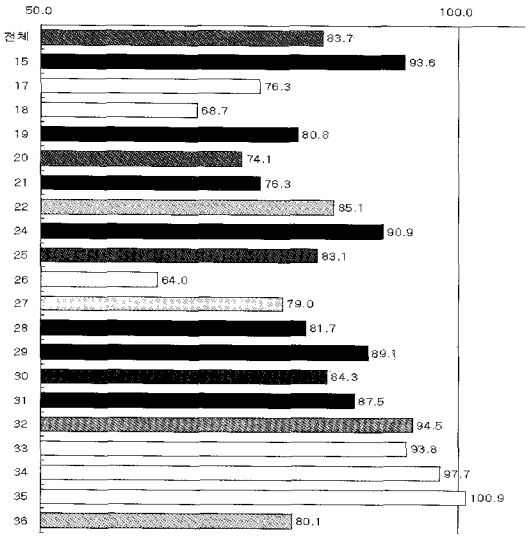


2005년 중소제조업 업황전망 SBHI

	중소 제조업	기업규모		기업유형		내수.수출		공업부문	
		소 기 업	중 기 업	일반기업	벤처기업	내수기업	수출기업	경공업	중화 학공업
업황 SBHI	83.7	79.4	93.1	81.6	104.5	78.2	87.8	79.9	87.0

- 업종별 업황건강도 지수(SBHI)는 금년도와 보합세를 예상한 기타운송장비(100.9)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비금속광물제품(64.0),의복 및 모피제품(68.7), 목재 및 나무제품(74.1), 섬유제품(76.3), 종이 및 종이제품(76.3) 등의 업종이 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.

〈 업종별 2005년 중소제조업업황전망SBHI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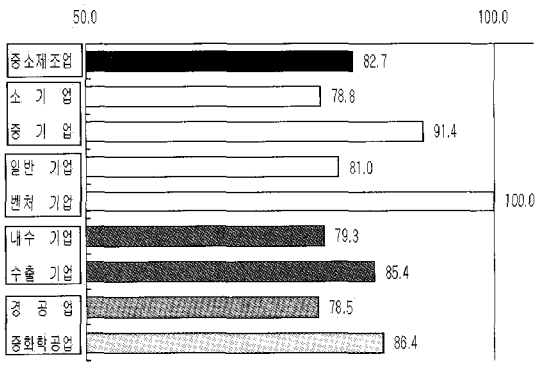


15.음식료품, 17.섬유제품, 18.의복 및 모피제품, 19.가죽·가방·신발, 20.목재 및 나무제품, 21.종이 및 종이제품, 22.출판·인쇄·기록매체, 24.화합물및 화학제품, 25.고무·플라스틱제품, 26.비금속광물제품, 27.제1차금속산업, 28.조립금속제품, 29. 기타기계및장비, 30. 컴퓨터및사무용기기, 31.전기기계·전기변환장치, 32. 전자부품·영상·음향·통신장비, 33.의료·정밀·광학기기·시계, 34.자동차및트레일러, 35.기타운송장비, 36.가구및기타

■ 2005년 중소제조업의 내수경기(SBHI : 82.7)는 금년도의 내수부진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.

- 이는 민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, 기업의 투자회복세 부진, 중국의 저가공세, 부동산시장 급랭 등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.
- 벤처기업(100.0)만이 금년과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기업규모·수출유무·공업부문에 관계없이 모두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특히, 소기업·내수기업·경공업의 내수부진의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.
- 업종별로도 전 업종에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의복및모피제품(69.8), 비금속광물제품(70.0), 가죽·가방·신발(74.1), 목재및나무제품(74.4)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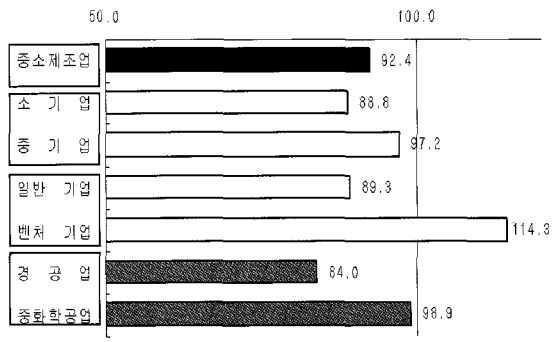
〈 2005년 내수경기 전망 SBHI 〉



■ 2005년 중소제조업의 수출경기 전망 SBHI는 92.4로 나타나 금년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.

- 이는 미국 등 세계경제가 둔화되고,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, 환율하락, 해외진출기업의 현지부품조달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.
- 내수전망과 비슷하게 벤처기업(114.3)만이 금년보다 수출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기업규모 · 수출유무 · 공업부문에 관계없이 모두 금년보다 수출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함.
-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(115.6), 화합물및화학제품(108.9), 기타기계및장비(104.8) 등의 업종은 수출이 다소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반면, 의복및모피제품(66.7), 섬유제품(73.1), 목재및나무제품(78.0), 가죽 · 가방 · 신발(82.6) 등의 업종은 극심한 수출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.

〈 2005년 수출경기 전망 SBHI 〉



■ 새해 중소제조업의 고용계획을 보면 금년보다 채용인력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1.6%, 채용계획이 없거나 줄이겠다는 기업은 24.7%로 나타나 새해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은 경기부진에 따른 신규 인력수요 위축으로 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- 특히, 중소제조업의 13.3%가 퇴직 등 자연감소분이 있다하더라도 신규채용계획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, 대부분의 기업(63.7%)은 금년의 고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- 기업유형별로 보면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을 늘리겠다는 기업(10.3%)이 줄이겠다는 기업(25.9%)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고용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, 벤처기업은 고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25.6%로 축소 내지 계획이 없다는 기업(12.0%)보다 높게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.

〈 2005년 고용계획 〉

(단위 : %)

		계획없다	줄이겠다	현수준유지	늘리겠다
중소제조업전체		13.3	11.4	63.7	11.6
기업유형	일반기업	14.2	11.7	63.8	10.3
	벤처기업	4.5	7.5	62.4	25.6

■ 2005년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는 향후 경기 불투명, 내수기업의 투자부진 및 기업의 안정경영 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년도의 설비투자 부진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부문의 투자활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.

- 조사결과를 보면, 설비투자를 금년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12.6%에 그친 반면, 금년수준 유지가 52.3%, 투자계획 없다가 28.3%, 투자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6.7%로 나타남.
- 업종별로는 목재및나무제품, 출판 · 인쇄 · 기록매체, 의복및모피제품 등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, 자동차부품, 전자

부품 · 영상 · 음향 · 통신장비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.

〈 2005년 설비투자 계획 〉

(단위 : %)

		투자계획없다	줄이겠다	금년수준유지	늘리겠다
중소제조업전체		28.3	6.7	52.3	12.6
기업유형	일반기업	29.7	6.7	51.6	11.9
	벤처기업	14.3	6.8	59.4	19.5

■ 중소제조업체의 26.2%가 기술개발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, 기술개발을 할 계획이라는 업체 또한 금년수준 유지(51.5%) 가 대부분이고, 투자규모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17.6%에 불과하여 2005년도 중소제조업의 기술개발 투자는 금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- 다만, 기술개발투자계획이 없는 응답기업을 보면, 일반기업이 28.1%로 벤처기업(6.8%)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벤처기업의 기술혁신투자는 다소 활발할 것으로 예상.
- 업종별로는 화합물및화학제품과 의료,정밀,광학기기및시계, 전자부품.영상.음향.통신장비, 자동차부품등의 업종에서 기술개발투자증가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섬유제품, 목재및나무제품, 종이및종이제품 등의 업종은 감소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〈 2005년 기술개발투자 계획 〉

(단위 : %)

		투자계획없다	줄이겠다	금년수준유지	늘리겠다
중소제조업전체		26.2	4.6	51.5	17.6
기업유형	일반기업	28.1	4.8	51.8	15.3
	벤처기업	6.8	3.0	48.9	41.4

■ 새해 중소제조업들은 내수부진, 자금조달난, 원자재난이 경영상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기업경영에 미치는 경제불안 요인으로는 고유가 및 환율불안, 정치불안을 가장 많이 지적.

- 새해 예상되는 기업경영애로 요인(복수응답, %)
  내수부진(63.5) 〉 자금조달(34.9) 〉 원자재난(34.8) 〉 납품단가 인하요구(31.8) 〉 수출부진(18.0) 〉 중국 등 동남아제품 저가공세(17.8) 등의 순
- 새해 기업에 미치는 경영불안 요인(복수응답, %)
  고유가및환율불안(73.1) 〉 정치불안(38.0) 〉 금융시장불안(34.6) 〉 정부의 정책혼선(28.2) 〉 노사관계불안(12.7) 〉 중국의 긴축정책(12.3) 등의 순

■ 중소제조업 CEO들의 중점 경영목표는 내실경영, 마케팅 강화,기술 · 경영혁신이며,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중기정책과제는 원자재수급원활화, 신용보증/자금지원 확대, 판로지원확대 등임.

- 중소제조업 CEO의 중점 경영목표(복수응답, %)
  내실경영 추구(61.9) 〉 국내마케팅 강화(38.5) 〉 기술혁신(28.0) 〉 경영혁신(20.3) 〉 해외마케팅 강화(19.3), 신규사업 진출(12.7) 등의 순
-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중기정책과제(복수응답, %)
  원자재수급 원활화(45.1) 〉 신용보증 · 자금지원(42.9) 〉 국내판로지원확대(40.5) 〉 중소기업인식개선(27.8) 〉 각종 규제철폐(27.3) 등의 순

■ 2005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

- 중소제조업CEO들이 본 국내 경제전망지수(SBHI)가 100을 훨씬 밑도는 72.0으로 나타나 올해 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
- 중소제조업 CEO들의 경제불안심리지수가 53.8로 나타나 내년도 경제에 대해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음.
-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34.4%로 가장 많았고, 불투명도 30.5%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향후 경제전망이 불확

실함을 시사.

- 중소제조업 CEO들이 본 2005년 국내경제성장률 전망(GDP 기준)은 평균 3.5%로 타 경제예측기관의 전망치(3.7%~4.5%)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.
- 2005년 시중 금리(회사채수익률 기준) 전망은 평균 4.9%이며, 중소제조업계가 바라는 적정금리는 평균 4.6% 수준
- 2005년 대미달러 기준 예상환율수준은 1,111원이나, 채산성 유지를 위한 적정환율 수준은 1,167원

축
발 전

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
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유진판지공업(주)
대표이사 **문원식**

12월 12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.

축
발 전

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
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신흥판지공업사
대표 **이진섭**

12월 20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.